

우리말의 영어표현에 대한 표준화(?)

머리말

한국은 GDP기준 세계 11대 경제대국, 작년에는 무역규모가 8천억US\$를 넘어선 세계 11대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건줄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닦는데 안간 힘을 쏟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경제력을 높이고 국제환경변화에 잘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당면 과제이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데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길잡이가 바로 영어이고, 이 영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런 연유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위력 또한 대단하다. 전 세계 인터넷에 담긴 정보의 70% 이상이 영어로 표현되고 있고 영어를 모르는 국제무역도 감히 생각할 수 없으며, 우수한 영어 구사능력이 좋은 일자리와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성 싶다.

이러한 영어를 배우기 위한 우리의 지나친 집착과 투자는 유별나다 못해 딱하기조차 하다. 교육열이 남달리 높은 탓도 있지만 마치 영어에 환(?)이 맺혀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열성만큼 대단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거의 20여년간 교과과정을 거쳐 영어에 몰두하면서 문법과 독해 위주로 세뇌되어 문장을 겨우 이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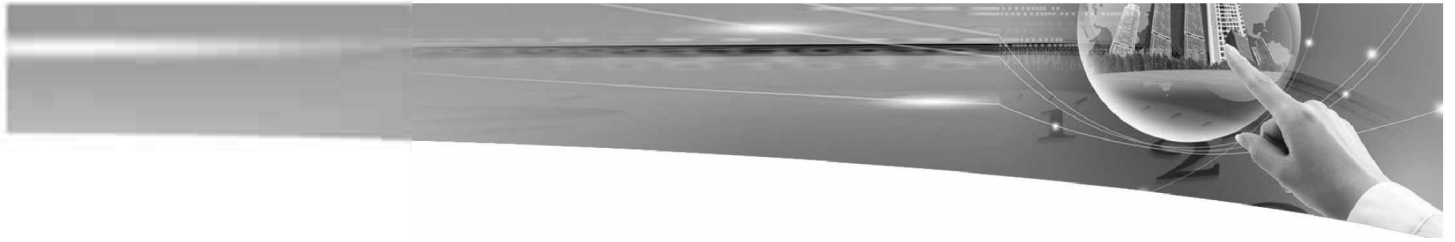
수준까지 다다르지만, 외국인과 만나면 머릿속에 단어만 맴돌면서 속시원히 하고 싶은 말 한 번 못한 채 주눅이 들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더욱이 국내의 교육체제를 부정하거나 믿지 못해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해외로 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기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애꿎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수조원에 이르는 비생산적인 분야의 외화유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 기러기 아빠의 양산과 따뜻한 가족문화의 단절 등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이



박 창 형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원장
02-3668-3009



나 안내물의 지명이나 인명 등에 대한 잘못된 영어 표기로 인해 외국인들 반 이상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말이 영어 원음에 충실치 않고 倭色에서 유래된 폐쇄되고 비현실적인 표기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탓이 아닐까? 우리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언어학자들도 한글이 어느 나라 언어보다도 영어를 거의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어(한글은 8,778개 소리를 적을 수 있는데 반해, 일본어는 201개 소리, 그리고 중국어는 427개 소리만 표기가 가능) 그 소리의 다양성에서 단연 세계 제1의 언어로 칭송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영어 표현(표기) 방식은 일본어 잔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왜곡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한글을 퍼내신 세종대왕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영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독특한(?) 표기법을 쓰고 있지만 우리의 영어 구사능력과 표현방식은 그에 못 미치게 아주 형편없고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화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존재를 세계에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 어설픈 영어 교육과 잘못된 영어 표현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고서는 갈 길이 바쁜 우리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못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더해 영어표기법에 대한 손질을 가할 것이라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나 영어 경쟁력을 강화시킬 지는 지켜볼 일이다.

本稿에서는 실용적인 영어로 변신하기 위한 영어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방식, 교사의 자질 등 교육제

도를 어떻게 전면적으로 개편할지에 대하여 전문가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하고 먼저 해결하여야 할 영어 표현방식에 대해(실제로 영어 표현방식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공염불) 문제점을 꼬집어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말의 영어 표현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인식으로 인해 얼마나 왜곡되고 오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를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그리고 표준화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영어에 대한 우리말표기는 일본식 잔재의 산물

영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기본규칙은 2000년에 개정된 문광부 고시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표기가 영어 원음과는 거리가 멀게 엉뚱한 발음으로 읽혀지면서 생활 속에 넓게 퍼져 있는 현상이 국제화시대에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그간 수차례 걸쳐 개정을 거쳤지만 우리 한글의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소리를 거의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된 언어임에도 크나큰 장점을 뒤로한 채 일본식 표기법을 모방한 1930년대 표기법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있어 왜곡된 발음이 난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글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알량한 한글 국수주의(?)에 빠져 현실과 거리가 먼 어설픈 표기법을 탄생시킨 일부 한글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책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잘못된 영어 표기가 고착화되고 영어를 습득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모음 7개(아, 이, 우, 에, 오, 와, 야), 로마자 표기 대상 음절수 112개, 받침수 1개(ㄴ)에 불과하여 세계적으로 불완전한 언어인 반면, 모음 21개, 음절수 12천여개, 받침수 28개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한글이 일본어의 영어표기법을 마치 참고서처럼 베끼고 있으니 반일감정을 외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외래어 표기를 너무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인이 외국에서 우스꽝스런 영어 발음을 하고 영어실력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은 이러한 절름발이식 표기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도 의미있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Michael Joseph Jackson)을 '마이께루'라고 연호하는가 하며, 'dog'을 '도꾸'로 'fan'을 '후앙'으로 'can'을 '깡'으로 읽어 낸다면 일본인 말고는 외국인 누구라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영어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일본어를 바라보면 참으로 딱한 생각이 든다.

우리도 이보다 크게 나올게 없다. 'seminar'를 '세미나' (→세미나)로, 'fax'를 '팩시' (→팩시)로, 남해안을 오염시켰던 'Sea Prince'를 '시프린스' (→씨프린스)로 'fashion'을 '패션' (→훼션, passion과 구분 불가)으로 읽는다면 과연 외국인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원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표기되는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들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 한글의 표기에 대한 다양성을 부정하면서 국민의 혀를 굳혀 놓고 영어 습득을 뒤쳐지게 만드는 흉물스런 족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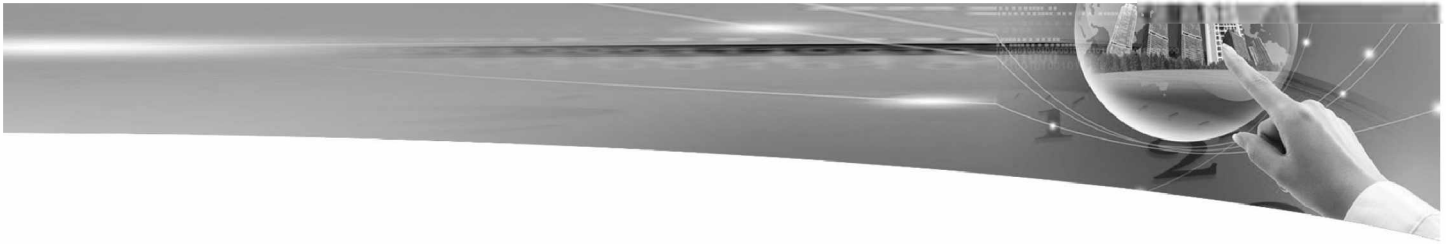
라고 비난하고 싶다.

영어 'a' 만해도 무려 10가지로 다른 발음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대응되는 '아' 만 쓰도록 (외래어 1음운 1기호 원칙으로 24자 자모만을 사용) 하고, 'b'와 'p'를 '포'로만 발음하게 하고, 장모음을 무시해버리고, 파열음(S 등)에 된소리(ㅃ 등)를 못쓰게 하는 등 정말로 우리의 영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말의 영문표기법도 현실과 동떨어져

우리말의 단어나 지명·인명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는데 있어 앞서 언급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영어단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문제점 대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길거리의 안내표지판, 책자, 명함 등에서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전환할 때 흔히 활용되는데 이 역시 외국인이 한글 발음대로 제대로 읽어 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영어단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발음하는 것 보다 한국단어(지명 등)를 영어로 표기하여 발음하는 것이 원음에 충실하기 더 어려워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근접하게 표기하여 읽을 수 있음에도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단단한 벽에 막혀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거북선'을 외래어 표기법대로 하면 'Geobukseon'인데 외국인 거의가 '지오벅시온'이라고 읽게 되어 거북선이 이상한 용어로 둔갑하게 되니 이순신 장군이 크게 노하지 않겠는가? '경기'를 'Gyeonggi' (실제로 '가이온가이'로 읽혀짐), '판교'를 'Pangyo'로(실제로 '판교' 또는 '팽요'로 읽혀짐) 표기하는 등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이 들 수 있는데 도로표지판의 경우 반 가까이를 외국인이 우리말 용어대로 읽을 수 없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성으로 쓰이는 'Park' (팍), 'Kang' (강), 'Choi' (초이), 'Cho' (초) 등의 성과 이름, 그리고 많은 용어들도 마찬 가지다.

이러한 그릇된 표기는 문공부고시(2000-8)인「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는데, 아버지를 'A beo ji' (실제로 '에이브자이'로 읽혀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인 'i'는 'eo' (아마 Seoul에서 유래된 듯함), 'j'는 'yeo', 'w'는 'oe' 등으로 표기하는 누를 범하고 있으며, '쌍용'과 '까망'을 'ssangyong' (실제로 '쌍용'으로 읽혀짐)과 'kkamang' (실제로 '캐맹'으로 읽혀짐)의 경우와 같이 'ㅃ'은 'ss' (실제로 영어 자음이 반복되면 massage처럼 오히려 부드럽게 읽혀짐) 등으로 영어의 본 발음과 괴리되게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의 原 발음대로 읽어 주기를 주문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욱이 우리 한글을 배울 때에도 커다란 장벽이 된다.

사전임을 전제로 하면서 A氏가 추천한 'ㅏ'를 'ah'로 'ㅑ'를 'ur' 또는 'uh'로 하는 등 우리말의 영어표기를 영어 원음에 거의 맞출 수 있는 길은 충분하므로 표기법에 대한 손질은 가해야 할 것이며, 만약 현재의 표기체계를 방치하거나 고집한다면 우리말의 국제경쟁력은 점점 멀어지지만 할 뿐이다.

실제 영어와는 거리가 너무 먼 Konglish

흔히 한국인이 구사하는 독특한 영어를 콩그리쉬(Konglish는 Korean English의 합성어)라고 부른다. 콩그리쉬가 우리 생활에 깊숙하고 넓게 퍼져 있을 수

록 외국어 습득에 드는 시간과 노력은 몇 배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콩그리쉬란 용어를 광의로 보면 앞서 기술한 영어 단어의 한글표기와 한글단어의 영어표기를 잘못되게 표현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의 본래 의미를 벗어나 우리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일본식으로 해석한 낱말 영어를 그대로 모방하여 우리 것으로 발전·계승(?)시킨 것이 주류이고 나머지는 한국식 어설픈 영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TV에 아나운서(announcer는 실제로 '어내운서'로 읽혀짐)가 초빙강사에게 '멘트(ment)'를 부탁했는데 이 용어는 영어사전에도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ment'를 붙여 명사화하는 구실밖에 없는 접미사(접미사 발음은 '먼투')인데도 제 판에는 '한 말씀'이란 용어보다 더 유식한 말을 써보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반인들까지 이 멘트를 전형적인 영어로 인식할 정도로 생활 속에 파고들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흔히 쓰여지는 용어에 상당 수 자리 잡고 있다.

'헬스클럽' (→Fitness club), 핸드폰(→휴대폰, 美: Cellular phone, 유럽: Mobile phone/명함 거의가 약자로 H.P.), 'OB' (Old boy는 선배나 노장층이 아니라 남자졸업생), '보스' (보스는 장패두목이 아니라 십장이나 고용주), '키로' (키로미터나 키로그램으로 명확히 해야 함), '프로' (program이 아님), '핸들' (→steering wheel), '오토바이' (→motor cycle), '질차' (Jeep 자체가 차란 뜻), '본넷' (→bonnet), '밤바' (→bumper), '오버' (→overcoat), '휴리닝' (→sports wear), '팬스' (pants는 영국에서 바지란 뜻), 슈퍼(→

supermarket), '아파트' (→apartment house), '아르바이트' (부업이 아니고 독일에서 일이라는 뜻), '컨닝' (→cheating), '오바이트' (→vomit, overeat는 토하는 것이 아니고 과식이란 뜻), '포오볼(four ball)' (→base on ball)등 우리의 생활·스포츠·연예·경제 등 모든 분야에 실제 영어가 아닌 우리만이 알 수 있는 한국식 영어가 만연되어 마치 영어의 얼굴로 화장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본 영어가 울고 갈 일이다.

이 문제 속에는 그릇된 외래어 표기법이 일부 내포되어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처럼 제도를 바꾸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언론매체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와 힘을 합치면서 전형적인 정통영어와는 거리가 먼 어설픈 용어의 사용을 억제(금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말할 때 영어를 섞어쓰는 것을 양해해야

우리는 세미나나 토론회, 그리고 일반 대화할 때에 영어단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어를 끼워 넣으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거나 보다 세련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써는 의미 전달이 좀 미흡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다.

하지만 굳이 영어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말 표현이 충분함에도 영어를 어설픈데 섞어 쓰거나 쓸데없이 과시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섞어 쓰이는 영어단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르네상스(Renaissance), 노하우(know how), 뉴스(News),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데뷔(Debut), 뉘앙스(Nuance) 등과 같이 우리말 한 단어만으로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없거나 용색하여 영어

단어에 상응하는 우리말 대체어가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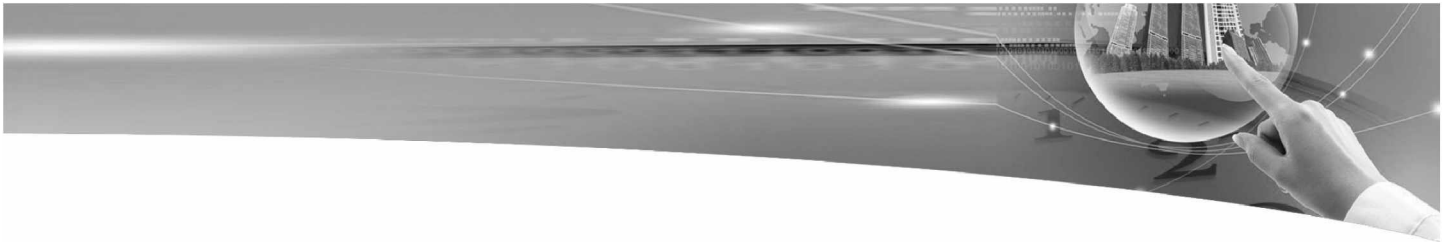
둘째로, 시스템(System)/체계, technique(테크닉)/기술, item(아이템)/항목, 텍스(tax)/세금, date(데이터)/자료, 게임(game)/경기, 엘리베이터(elevator)/승강기, copy(카피)/복사 등과 같이 우리말 보다 영어표현이 본 의미에 충실할 수도 있거나 어색하지 않아 우리말보다 영어가 약간 더 지배적인 경우이다.

셋째로, 혁신/이노베이션(Innovation), 과정/프로세스(process), 일상외/루틴(routine), 개선/임프르브먼트(Improvement), 기여/콘트리뷰션(contribution), 요소/팩터(factor), 지위/스테터스(status), 균형/밸런스(balance) 등과 같이 우리말이 일반화 되어 우세하지만 영어도 같이 쓰는 경우이다.

넷째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학술토론회나 특수 분야 간담회 등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예시 : Tensile Strength, MOU, MRA 등)나, 특별한 용어(Nut-cracker, Top-down, Cluster 등)로 쓰는 경우이다.

다섯째로, 비밀/씨크릿(secret), 비서/씨크리터리(secretary), 장점/어드밴티지(advantage) 등과 같이 충분히 우리말을 써도 지장이 없는 데에도 영어를 섞어 쓰고 싶어 하는 경우이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이 모든 경우에 영어를 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너무 튀지 않고 과시한다는 인상이 없다면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아무 영어나 섞어 쓴다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영어를 섞어 쓸 때에는 앞서 영어표기법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했듯이 영어의 원 발음에 충실해야 하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품사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인상된다는 뜻으로 “가격이 인크리즈(increase) 하다”라고 하면 영어동사에 우리말의 ‘하다’를 붙인 격이 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뜻으로 “리즈너블(reasonable)한 제안”이라고 하면 영어형용사에 우리말의 ‘한’을 붙인 격이 되며, 선물을 주다라는 뜻으로 “프레즌트(present) 하다”라고 하면 영어명사에 우리말의 ‘하다’를 붙인 격이 되어 이상한 꼴이 되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말에 영어를 섞어 쓰는데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하여 우리말을 퇴색시키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말속에 영어를 더 친숙하게 하거나 생활화 할 수도 있고 영어 습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영어는 국제화시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필연적인 수단이다. 우리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모국어를 가지고 있지만 전 국민의 95%가 가까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전국의 40% 이상이 영어, 독어, 불어 등 3개 국어를 이해하고 말할 줄 안다고 하니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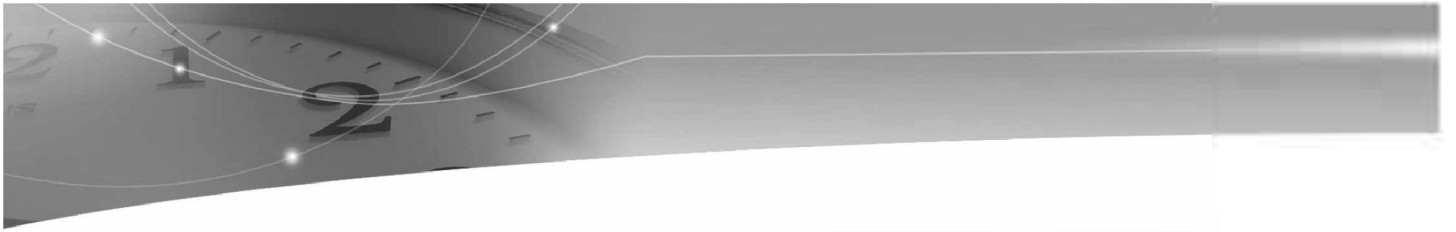
물론 네덜란드어가 언어구조상 영어와 비슷하여 우리보다 영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의 영어 실력은 우리가 들인 노력이나 투자에 비

해 아주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 영어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나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최근 논의 중인 교육제도의 개혁, 원어민 교사의 확보 등 교육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실제 발음과 괴리된 표기로 인해 외국인이 우리말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우리가 영어를 잘 못 읽게 되어 영어 습득에도 걸림돌이 되며, 외국인도 우리말을 배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외래어표기법을 과감히 털어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말은 어느 언어와 견주어도 영어를 제대로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서 영어를 습득하는데 커다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외래어표기법이란 잘못된 약속에 구속되어 우리말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일본식 영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뒤틀린 영어표현에 익숙해 있는 현실은 시급히 바로 잡아져야 한다. 잘못된 체도와 관행이 관을 치고 만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제대로 된 영어인 양 착각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만의 고집스런 영어는 쓰레기통에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다.

도로 표지판이나 전철노선표, 그리고 명함이나 안내책자 등에서 우리만의 어설피고 왜곡된 표현을 고수한다면 외국인 누구나 가고자하는 장소를 손쉽게 찾아갈 수 없으며 올바른 지명과 인명을 잘 알 수 있겠는가? 나아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도 이러한 일거리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관광산업을 키우는 것을 한 날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을 여



행하다 보면 잘 짜여 있는 영어안내서나 올바른 표지판 등으로 관광지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럽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이는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금융·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배우기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뻔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자각하여 시급히 고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대로 방치하거나 좌시된다면 우리의 영어 경쟁력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뒷걸음치게 되어 국제화시대에 성장엔진을 원활히 구동시키는데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말의 다양성을 줄먹는, 영어 습득에 걸림돌이 되고 영어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리고 일본식 잔재에 얽매어 있는 영어표기법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 영어표기에 있어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법에는 일반화된 문광부 고시외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ISO/TR 11941에 국제표준으로 제안된 한국안과 북한안이 있는데(한국과 북한측의 단일안은 결렬), 기표원안은 轉字法이고 문광부 고시는 轉寫法으로 불리나 거의 유사한 형태로 미소한 차이만 있어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도적으로 기존의 외래어표기에 대한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문광부가 이 사안을 계속 다루게 된다면 수십 여년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로 인해 올바른 영어표기를 제시하는데 커다

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Konglish(전형적인 영어표현이 아닌 한국식만의 표현) 문제는 표기법의 개정과 같이 제도를 바꾸는 측면보다는 언론매체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대목이다. 생활 속에 너무 태연하게 자리 잡고 앉아있는 잘못된 영어를 걷어내는 것은 제도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류나 왜곡된 표현에 관한 영어 사례집, 정오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시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말의 영어표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정리함에 있어 주관적인 견해가 섞여있고 무리한 주장으로 너무 앞서가는 논리를 펼친다고 비난할 소지도 있지만, 또한 그대로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데 공연히 일을 벌여 급여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 없이는 관성에 얽매이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상태를 방치할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현재 검토 중인 영어 교육제도의 개편이전에 반드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끄집어내어 누군가가 손을 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우리 주위에 상당히 파고들어 만연되어 있는 이상한 영어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앞으로 국제영향력이 더욱 더 커질 영어에 대한 역량은 하향 곡선을 그렇게 분명하며, 나아가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기술표준 2008. 3